성격을 알면 진로가 보인다

인천부흥초, 상반기 학부모 모둠상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같이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인천부흥초등학교(교장 박찬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반기 모둠 상담을 4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됐다.

학부모 모둠 상담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및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을 공유함으로 바람직한 학부모상 구현 및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하고, 학부모들의 자기 성장과 자질 향상을 통한 자녀와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한 이번 모둠 상담은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팀의 지원으로 상담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했다.

학부모 모둠 상담 활동은 검사 O.T 및 MBTI 성격유형 검사 실시, 8가지 선호지표 설명, 성격 유형별 그룹 활동, 유형별 의사소통 스타일, 나와 다른 가족 이해하기, 자녀의 성격유형 검사, 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MBTI 성격유형 검사를 처음 경험해 본 학부모가 대다수였으며 모둠 상담을 통해 학부모의 성격유형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이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며 모둠 상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8가지 선호지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기도 했으며, 성격 유형별 그룹 활동과 유형별 의사소통 스타일을 배우고 나와 다른 가족을 이해할 계기가 될 2회기의 상담이 벌써 기대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지는 3회기의 '자녀의 성격유형 검사와 그에 따른 학습법' 까지 익혀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도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가치 있는 성장과 같이 누리는 행복' 이 실현되리라 확신한다.

인용섭 기자 ays@

행복한 첫 주의 시작!

인천부개초, 학부모회 등굣길 아침맞이

인천부개초등학교(교장 최인자) 학부모회에서는 월 1회 등굣길 아침맞이를 하고 있다. 먼저 4월 17일 그 첫 시작으로 학부모회 회원 15명이 나와서 아침 8시 10분부터 ~55분까지 세 곳의 출입문에서 활동했다.

아침맞이 활동은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학부모회에서 연간 운영사업의 하나로 계획한 활동으로 앞으로도 매월 첫 주 월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란 반가운 인사와 함께 포근히 안아주는 어머니들의 사랑공세에 월요병으로 축 처진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신선하고 포근한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최인자 교장은 "높임말 쓰기, 허그로 시작하는 아침맞이 등의 활동들이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나비효과처럼 퍼져서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학교 교육에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활동에 동참했던 한 학부모는 "허그로 시작하는 아침맞이를 하다 보니, 학부모인 제 자신도 덩달아 흥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친구 어머니의 품에 안겨 따뜻한 하루를 시작한 한 학생 역시 "처음엔 좀 얼떨떨했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아침맞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부개초등학교'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용섭 기자 ays@

"친구야, 사랑한 day!"

삼산중, 친구사랑 주간 운영

삼산중학교(교장 박승순)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친구사랑 주간을 운영했다.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의 하나로 진행된 친구사랑 주간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실시됐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학생들의 시선을 끈 것은 등굣길 학생회의 '친구사랑 캠페인' 이었다.

학생회 학생들이 친구사랑 관련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가운데 미니언즈 인형을 쓴 학생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친구야, 사랑해.' 라며 프리허그를 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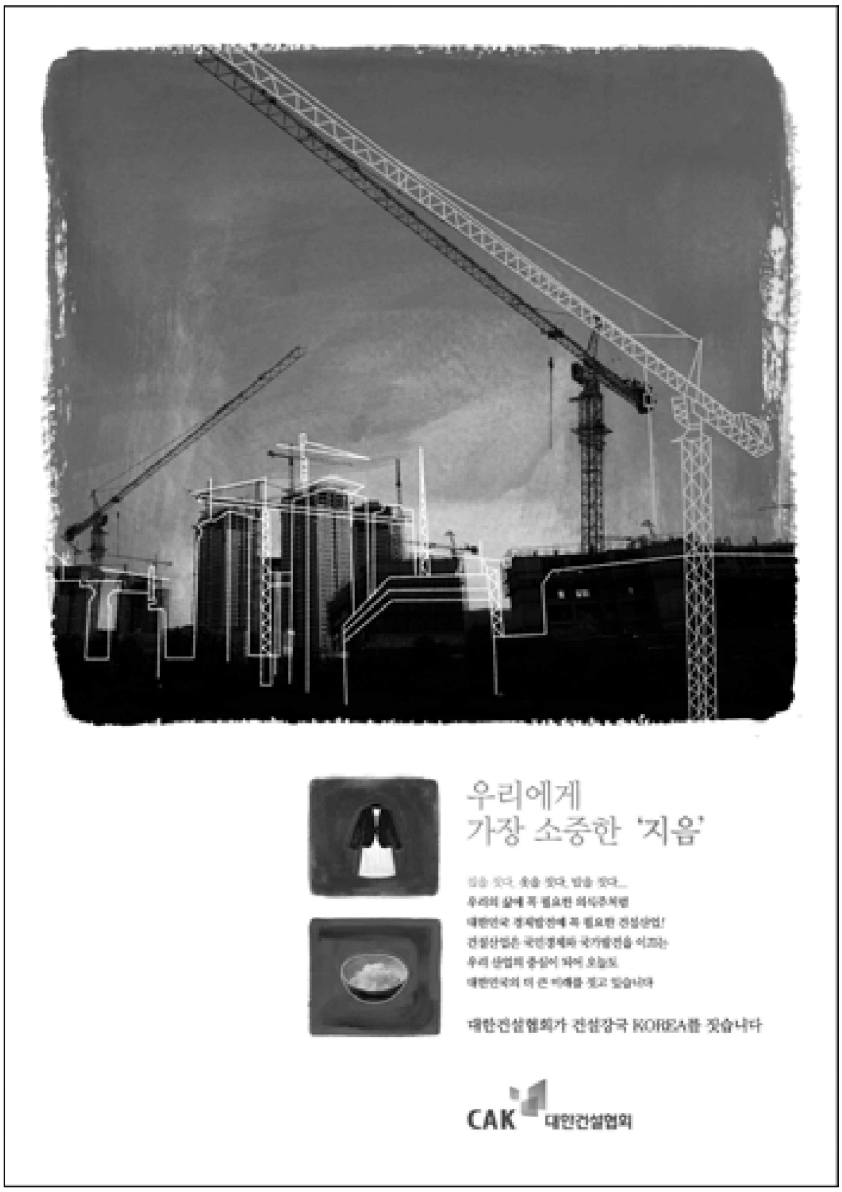
쑥스러워하면서도 싫지만은 않은 표정으로 많은 학생이 포옹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 이 행사 외에도 전교생의 학교폭력예방 실천 서약서 쓰기와 교내 문예 대회가 실시됐다.

또한, 친구사랑 주간 동안 도덕 교과 시간에는 학교폭력예방과 자아존중 및 올바른 의사소통능력 함양 수업을 했으며, 12일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 초청의 '회복적 생활교육' 이라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미 '포춘 쿠키 나누어 주기', '안전 지킴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등의 등굣길 행사를 하는 삼산중학교는 앞으로도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를 위해 지속해서 등굣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한 장모 학생은 "긴장되는 등굣길에 이런 행사를 하니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나와 미래를 알아가는 시간

상인천여중, 전학년 대상의 '꿈 만들기' 진로캠프 열려

상인천여자중학교(교장 김인숙)는 4월 14일 '꿈 만들기'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학년은 '나 알아가기', 3학년은 '미래 설계하기' 라는 주제로 교실과 강당에서 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진로탐색검사 활용에 대한 설명과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진로작품대회가 개최됐다. 또한, 같은 시간 2학년 학생들은 '꿈 찾아가기' 라는 주제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동인천)에서 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오전에는 각자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골프, 도예, 난타, 클레이, 방송댄스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 저)' 이라는 연극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2학년 이모 학생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들이 마치 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대사 전달 방식이 독특했고 따뜻한 결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라며 연극을 관람한 소감을 밝혔다.

3학년 김모 학생은 "오늘 특수분장을 하는 선생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많아졌는데, 진로로드맵을 그리면서 나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라며 진로캠프에 참가한 소감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인숙 교장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체험해 보게 하는 활동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ys@

융합인재양성의 요람

상인천중, 영재학급 개강식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는 4월 10일 인천광역시지정 단위학교 영재학급 개강식을 했다.

이공계 방면으로 잠재적 영재성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그들의 재능을 계발할 목적으로 설치된 영재학급은 수학, 과학 분야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심층면접, 인성 등을 선발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1개 학급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융합프로젝트 학습, 수학·과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문제해결접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STEAM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며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총괄을 맡은 오윤주 과학영재부장은 2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연간 운영계획과 과제연구에 대해 안내를 했다.

특히, 남동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체험학습과 탐구활동을 풍성히 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홍근 교장은 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융합적 소양과 문제해결방법 등을 가르치는 영재학급은 상인천의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개강식에 참가한 3학년 학생은 "과제연구와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한다며 열심히 공부해 핵융합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의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용섭 기자 ays@